황인홍 무주군수 "처음과 끝이 같아야"

무주군, 시내일신(時乃日新) 화두로 2019년 시무식 열어

무주군은 2일 무주읍 예체문화관 대강당에서 2019년도 시무식을 가졌다.

무주군은 2일 무주읍 예체문화관 대강당에서 2019년도 시무식을 가졌다.

이날 시무식에는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등 5백 여 명이 참석했으며 행사는 간부 공무원들의 현충탑 참배와 헌화에 이어 기념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황인홍 군수는 "처음과 끝이 오직 한결같아야 나날이 새로워지고 발전한다는 뜻을 담은 시내일신(時乃日新)을 화두로 2019년을 시작한다"라며 "올해는 '무주를 무주답게 군민을 행복하게'라는 군정목표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원년으로 세계적인 으뜸관광, 건강가득 소득농업, 함께하는 주민복지, 지역맞춤 특색개발, 움직이는 자치행정, 이 군정지표들의 가시적 성과를 내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구체화시키기 위해 △사계절 레저관광천국 무주를 건설해 관광객들이 무주에 넘쳐나게 만들고 세대와 전통을 잇는 찬란한 향토문화 창달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 △지역 구성원 모두가 밝고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조성하고 지역산업이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견실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촘촘한 복지시스템 구축해 다함께 채우고 나누며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겠다고 밝혔다.

이외 △균형발전을 주도해 6개 읍면 발길 닿는 곳 어디라도 아름다운 무주강산을 가꿀 것과 △현장중심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신뢰할 수 있는 행정, 군민들의 안전한 삶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군수는 공무원들에게 "처음 가졌던 결심, 오늘의 다짐과 각오를 잊지 않고 항상 소통하면서 행복이 일상이 되는 무주를 만드는데 집중하자"라며 "섬기는 마음으로 무주사람들이 만드는 무주, 무주사람들이 행복한 무주를 만들어 갈 것"을 당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이항로 군수 "진안 건설에 모두가 힘을 합쳐줄 것"

진안군, 2019년 시무식 개최 … 새출발 다짐

진안군은 2019년 기해년 새해를 맞아 2일 군청 강당에서 이항로 군수를 비롯해 200여명의 공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시무식을 갖고 새해 첫 업무를 시작했다.

이항로 군수는 신년사를 통해 "군민 삶의 질 향상과 미래희망 진안 실현을 위해 도전과 열정을 다한 공직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새해 희망찬 미래를 향해 힘차게 출발하자."고 밝혔다. 이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노력하면 성공을 이룬다는 '유지경성(有志竟成)'의 뜻을 품고 자랑스러운 진안 건설에 공직자 모두가 힘을 합쳐줄 것"을 당부했다.

시무식에 앞서 이항로 군수와 간부공무원, 도의원, 군의원 등 30여명은 유공탑 및 충혼탑에 들러 헌화와 분향, 묵념 등 참배를 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이팔청춘 치매예방교실' 운영

관내 80개 경로당 대상

무주군은 '치매걱정 없는 무주'를 만들기 위해 올 한 해 '이팔청춘 치매예방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관내 80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며 치매예방교육을 비롯한 인지자극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무주군보건의료원 관계자에 따르면 프로그램은 4주, 12주, 24주로 나눠 전문 강사진과 함께 하는 운동과 노래, 미술, 공예, 예술, 난타 등이 진행되며 문학마을을 비롯한 공부방마을, 공예마을, 음악마을, 운동마을, 기억지킴이 마을 등 특화된 프로그램도 선보일 예정이다.

무주군보건의료원 치매안심센터 황영내 팀장은 "어르신 인구가 많은 만큼 올해도 치매 예방을 위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며 "최고의 강사진과 어르신들이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치매걱정 없는 무주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팔청춘 치매예방교실 운영을 위해 무주군은 1월 중순까지 대상 경로당과 강사 선정 등을 마칠 예정으로 2월부터는 프로그램 운영이 본격화 될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무주군 치매안심센터(무주군보건의료원 4층)는 치료와 재활을 위한 프로그램실을 비롯해 검진실과, 상담실, 가족카페 등을 갖추고 지난해 7월 개소 후 지금까지 549명에 대한 치매환자 등록을 마쳤으며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을 비롯한 치매환자 쉼터 프로그램 및 치매환자 가족교실 운영 등에 주력하고 있다. 치매예방교육과 현실인식 훈련 등도 진행하고 있어 노년을 뒷받침해주는 든든한 의지처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태권도진흥재단은 3일부터 3박4일의 일정으로 태권도원에서 '2019 전국 태권도장 모범 수련생 캠프'를 진행한다.

전국 태권도장 모범 수련생 초청 캠프

태권도진흥재단, 17개 시·도 태권도협회 추천 100명 참가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이상욱, 이하 재단)은 '세계 태권도 성지, 태권도원'으로 모범 태권도 수련생을 초청해 '2019 전국 태권도장 모범 수련생 캠프(이하 캠프)'를 진행한다.

3일부터 3박4일의 일정으로 태권도원에서 열리는 캠프에는 17개 시·도 태권도협회에서 추천한 태권도 수련생 100명이 참가한다. 이번 캠프에 참가하는 태권도 수련생들은 태권도 2단(품)이상 보유자로 태권도 강습과 초청 강연, 참가자 간 경연, 응급처치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가할 예정이다.

특히, 고단자와의 만남에는 재단 정국현 사무총장이 강사로 나서 '국위선양과 태권도'를 주제로 한 강연과 참가자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비전맵 작성' 등 청소년 수련생들이 평소 접하기 힘든 정신적 수양과 진로탐색에 관한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다.

재단 이상욱 이사장은 "태권도를 수련중인 전국의 모범 수련생들이 짧은 시간이나마 태권도원에 와서 수련하고 성장해나가는 것이 큰 의미이다"라며 "2019년~20년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태권도원에서의 캠프를 통해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과 태권도 수련생으로서의 자부심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한편, 재단은 이번 캠프를 통해 청소년 태권도 수련생들에게 향후 진로에 대한 비전과 동기를 부여하고 태권도인으로서의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으로 이번 캠프 성과를 확인 후 참가자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스마트솔루션, 장수군에 이웃돕기 물품 기탁

스마트솔루션은 2일 어려운 이웃을 위한 라면 456박스와 쌀(20kg) 106포 등 1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장수군에 기탁했다.

기탁된 물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장영수 군수는 "어려운 이웃들을 잊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부를 실천해주시는 소경용 대표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메아리

진안군농업기술센터 제22대 김필환 소장 취임

진안군농업기술센터 김필환 소장 취임식이 농업기술센터 직원과 농업단체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일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개최됐다.

신임 김필환 소장은 1980년 공직에 첫 발을 내디딘 후 인력육성담당, 생명농업담당, 기술담당관, 농촌지원과장 등 40여 년간 진안농업 발전을 위해 헌신한 농업분야 전문가이다.

김필환 소장은 취임사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진안 농가들의 편익과 소득 증대를 위해 각종 기술보급사업과 다양한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등 진안농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안군 농업기술센터는 미래농업 발전 비전 제시를 위한 농업기술지도는 물론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맞춤형 현장중심 신기술 보급을 위해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가들의 농사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농작업대행 및 농기계 폐오일 교환사업 등은 농가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 부귀면, 따뜻한 온정 봇물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진안군 부귀면(면장 김진구)에 따뜻한 나눔 행렬이 이어져 추위를 녹이고 있다. 부귀면 태생인 허경석씨(69)와 김병환씨(68)는 죽마고우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200만원의 성금을 기탁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전주시 안골에서 웰빙새알팥죽집을 운영하고 있는 가정마을이 고향인 김씨와 부귀에서 행복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허씨는 40여 년간의 우정을 이어온 둘도 없는 친구로, 소외된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을 주기 위해 올해까지 3년째 한마음 한뜻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해오고 있다.

부귀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석근 위원장(65)은 부귀면지역아동센터의 환경개선을 위해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으며, 중수항마을에서 양계장을 운영하는 유재영씨(65) 50만원을, 같은 마을에서 사과농장을 운영하는 임덕진씨(66)도 10만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부귀면 청년회(회장 주명한)는 관내 마을회관 등에 국수와 귤 40박스를 전달했다. 김진구 면장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따뜻한 마음과 손길 덕분에 춥지만 훈훈한 연말이 되고 있다. 우리 주변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으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따뜻한 부귀면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